

뽕긱팀의 진화는 계속된다!



Episode

1. Greenhouse in Pugaro
2. AttiKlase in Dumpsite
3. 인간극장
4. 중간평가
5. Homestay
6. 우리들의 이야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	---	---	---	---	---



November 팡팀의 활동달력

1
홈스테이

2	3	4	5	6	7	8
---	---	---	---	---	---	---

홈스테이	홈스테이 덤프사이트	푸가로 따갈로그 수업	따갈로그 수업	덤프사이트	그린하우스 최종 점검	푸가로 -대나무 구입
------	---------------	----------------	---------	-------	----------------	----------------

9	10	11	12	13	14	15
---	----	----	----	----	----	----

푸가로 -워크숍 취소	덤프사이트	푸가로 -워크숍 -그린하우스 제작	푸가로 -그린하우스 제작	덤프사이트	한국인 친구 집 방문	푸가로 -비료 제작 중간평가 준비
----------------	-------	--------------------------	------------------	-------	----------------	--------------------------

16	17	18	19	20	21	22
----	----	----	----	----	----	----

개인 자유시간	덤프사이트	푸가로 따갈로그 수업	세미나 참여 Mr. JOSH 방문	덤프사이트	중간평가 준비	플라스틱 팻 제조
---------	-------	----------------	-----------------------	-------	---------	-----------

23	24	25	26	27	28	29
----	----	----	----	----	----	----

생일 파티 참여 (말루 조카)	덤프사이트 중간평가 시작	중간평가 푸가로 덤프사 이트	중간평가 Hundred Islands	중간평가 산타크루즈 방문	푸가로	덤프사이트
---------------------	------------------	-----------------------	-------------------------	------------------	-----	-------

30						
----	--	--	--	--	--	--

덤프사이트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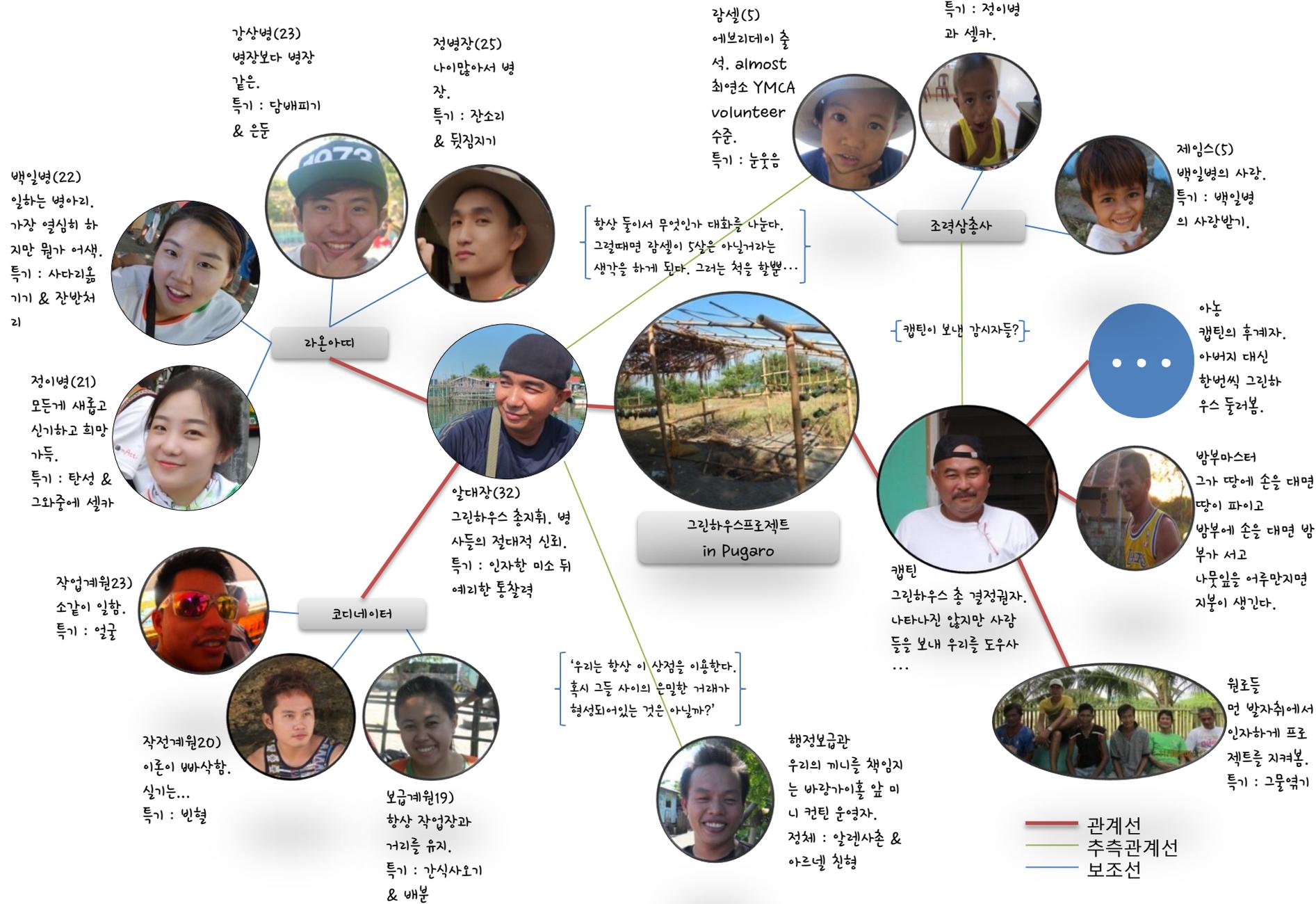
Greenhouse Project



천 번은 흔들리고 아프니까
청춘이고 어른이 되고 라온아띠다.

: 푸가로에서 그린하우스를 중심
으로 벌어져는 청춘남녀노소임
산부노총각처녀신생아를 위한
시련로맨스호러스펙터클반전성
장희망어드벤처하이틴히어로물

주요인물관계도 in Greenhouse Project





밤부와의 전쟁 : 밤부마스터&조력자들의 전성시대

라온아띠 ★★★★★☆ YMCA ★★★★★☆ 푸가로★★★★★

어드벤처&히어로 | 상영시간 : 2시간13분 | 2014. 11. 11. | 전체관람가

감독 : 엔조 주연 : 밤부마스터, 조력3총사

줄거리 : 필리핀의 뜨거운 겨울 어느 날, 라온아띠 멤버들은 패기롭게 그린하우스 워크샵을 마쳤다. 라온아띠 멤버가 예상한 그린하우스 제작 기간은 하루. 그리고 그를 비웃듯 나타난 밤부마스터와 조력3총사. 그들은 2시간이면 그린하우스를 지을 수 있을 거라 호언장담을 하고 라온아띠는 이를 믿지 못하는데... 더보기



“자, 저희가 저 뒤에 그린하우스를 똥! 지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만 믿어 주십시오~!”

“삽질을 시작해볼까! 소용돌이 삽질! 어라? 잘 안되네?”
“강상병 나와봐 내가 해볼게”

“이보게 젊은 이들 내가 좀 해보아도 괜찮겠나?”
“어르신, 이거 꽤나 어렵습니다”

“헛! 우리는 밤부마스터라고! ㅋㅋ”



“우리도 좀 나서 볼까?”
“아가 너희가 뭘 한다고 구경이나 하고 있으라고” (삐그덕삐그덕;;)

“힛ㅋ 누나 좀 쉬세요. 저희가 마무리 질게요. 우리는 조력자예요!”

“똥! 똥! 완성!”

“역시 일 끝나고는 할로 할로 한잔이지!”
“카~이 맛에 일한다.”



악취를 보았다 : 소동&음식물쓰레기와의 광기의 대결이 시작된다.

라온아띠 ★★★★★ YMCA ★★★★★ ☆☆☆ 푸가로★★★★☆

시련&호러 | 상영시간 : 푸가로 갈 때마다 + a | 2014. 11. | 비위약한자 관람불가

감독 : 엔조 주연 : 라온아띠, 코디네이터

줄거리 : 그린하우스 제작 후 한숨 돌린 아띠들. 하지만 끝나지 않은 그들의 역경. 퇴비를 눈으로만 보았지 직접 만들어 본적 없는 아띠들에게 찾아온 악취의 충격. 퇴비를 얻기위해 꼭 맞서야 하는 악취. 누가 이 보이지 않는 악취에 맞설 것인가. 그 용감한 자는 누구인가... **덕보기**

관람tip : 악취를 피하기위한 아띠들과 코디네이터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



"오늘 즐겁게 퇴비를 만들어보자~"
"퇴비를 보관할 구덩이부터!"
나름 아띠와 코디와의 보이지 않는 경쟁 中

쉽게 완성!

"신선한 풀을 뜯자~" 열심일병
"애들아 이거 뜯어봐 재밌어~"
말년병장

마른 풀도 준비 끝!!
"룰루랄라~ 신문지도 잘 찢기는구나 LOL~ 이제 음식물쓰레기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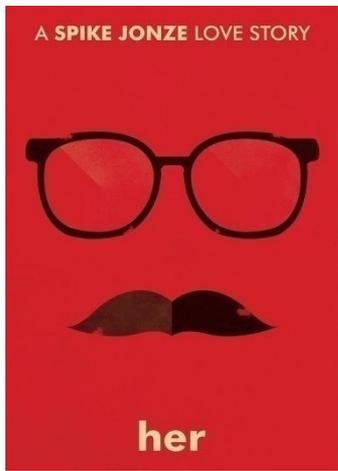
"가스가스! 화생방이다!
우와 장난 아니구만"

"와 심하지 않습니까 강상병님,
제 발에 똥 다 들어 갔습니다."

"애들아 이리와,
저기 냄새 장난아
니다"

어쨌든
완성!

"담는 건 도와줄게(인심)"
"고..고....고마워....ㅠㅠ"
"잘 썩어라. 퇴비야~"



헐!! : 너와 나의 Planting 스토리

라온아띠 ★★★☆☆ YMCA ★★★★★ 푸가로★★★★☆

좌절 | 상영시간 : 이틀 + a | 2014. 11. 25. | 욕심어하는 사람 관람불가

감독 : 엔조 주연 : 알렌 라온아띠 코디네이터 특별출연 : 심유경 조우영 지미 마셀
 줄거리 : 퇴비도 준비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찬란한 앞날. 아띠들은 우아하게 채소를 심고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또 다시 찾아온 시련, 강렬한 태양, 너무 많은 물, 우리 아가들이 위험하다. 우리 아가들을 살리기 위해 아띠들은 긴급조치에 들어가는데... 더보기



"Planting 할 사람~ 여기여기로 모여라~"

"Planting 하려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Can I also join with you?"

"자 플라스틱팻에 준비한 어린 펫차이(상추)를 심고, 이렇게 그린하우스에 매달아 주면!"
 "이...이..이렇게 하는 건가요? 알대장?"

"짜잔~~~"



"헤~ 예쁘다. 한국 돌아가서 꼭 해야겠다."

"우리 이제 펫차이 실컷 먹을 수 있다~"
 "성공이 확실합니다. 브이~~~"

며칠 후...

"왓 더!!!! 이런 젠장 시베리안 허스 키가있나!(*&^#@"

"너무 더워요....."



V for Greenhouse : 정의는 승리한다.

라온아띠 ★★★★★ YMCA ★★★★★ 푸가로 ★★★★★
 희망&화이팅 | 상영시간 : Forever | 2014. 12. | 전체관람가
 감독 : 엔조 주연 : 식물 & 우리모두

줄거리 : 긴급조치에 성공한 아띠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띠들은 이곳을 떠나기전 쑥쑥 크는 아가들을 보고 그린하우스를 푸가로 커뮤니티에 널리 알리고 마무리 워크샵을 하고 멋있게 떠나려고 하는데, 과연 아띠들의 간절한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지... 더보기



빠 꿈

"알대장님! 아직 생존자가 있습니다!"

"그래!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모두 힘내자!"

이렇게 헛!

저렇게 헛!

"지붕을 더 올려 햇빛을 막아보자."
 "우리도 도와줄게요~ 같이 햇빛을 막아봐요~"



지붕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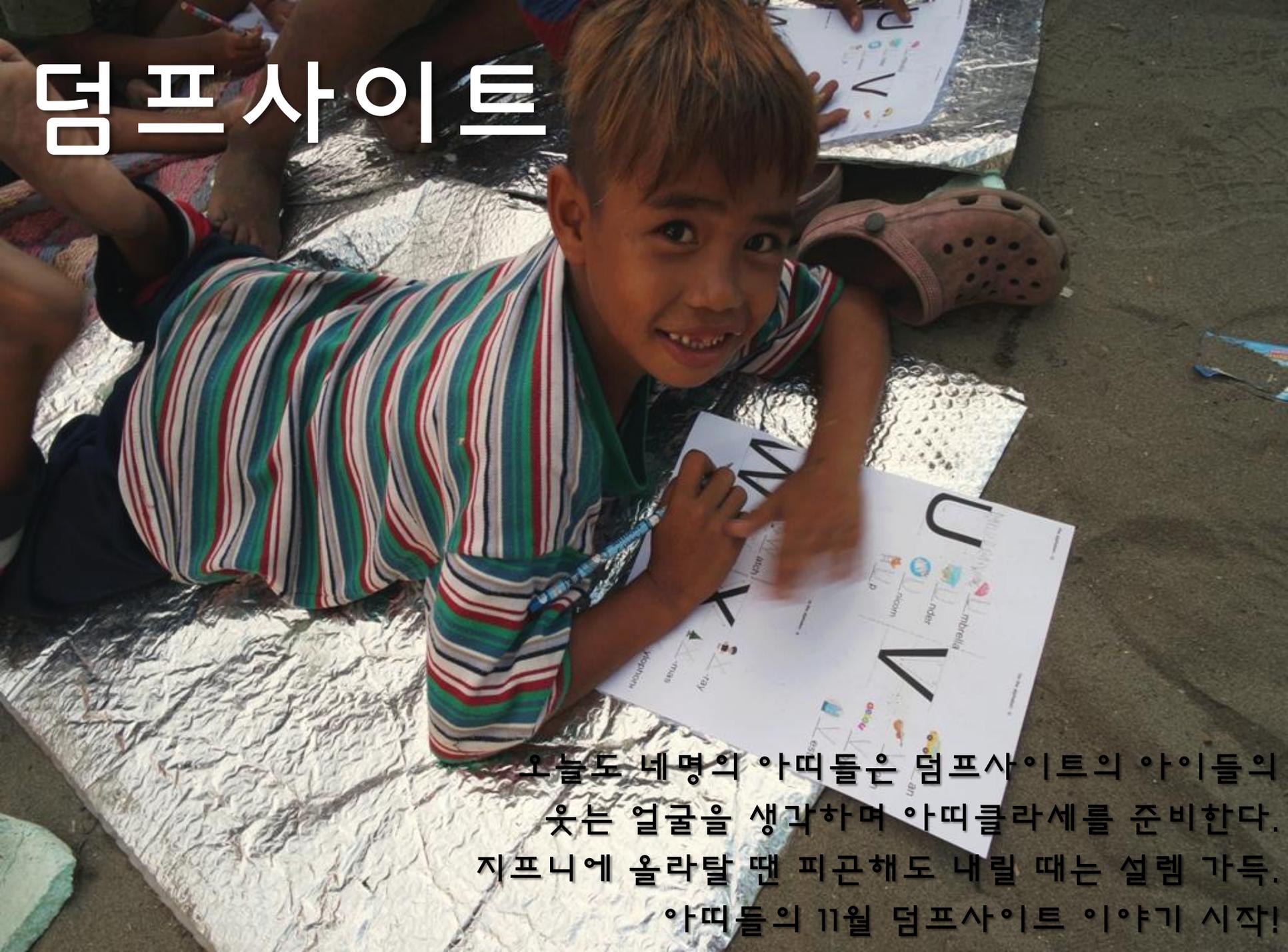
"젠장, 들어갈 틈이 없다. 억울하다 두고보자"

"고마워요. 여러분들. 이제 살만하네요."
 "우리 모두 건강해졌어요~"

"하하하~ 우리가 해냈다고!"

"고마워 아띠들! 다꿈빠이! 수고했어!썸나!" (성공!)

덤프사이트



오늘도 네명의 아띠들은 덤프사이트의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생각하며 아띠클라세를 준비한다.
지프니에 올라탈 땐 피곤해도 내릴 때는 설렘 가득.
아띠들의 11월 덤프사이트 이야기 시작!

하나. 점점 틀을 갖춰나가는 아띠클라쎌

이번 달 덤프사이트 활동은 아띠클라쎌를 위주로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알파벳 쓰기 하나로 시작한 아띠클라쎌가 이제는 자리를 많이 잡아 나름의 과정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

먼저 수업을 시작하면서 영어 동요와 따갈로그 동요를 율동과 함께 부르면서 아이들의 몸을 풀어 주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 그날 배울 것을 교육하고 아이들이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색칠공부와 함께 오늘 배운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간식을 나눠주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틀이 갖춰지고 나니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부족 느는 것을 느꼈고 이는 아띠들이 수업을 열심히 준비해가는 활력소가 되었다. 하지만 아띠들의 부족한 실력에 비해 아이들의 나이가 천차만 별이고 같은 나이 안에서도 아이들의 수준차이가 많이나 모든 아이들에게 맞는 수업을 하지 못해 많이 아쉽다.



시간	활동
0교시	따갈로그, 영어 동요 부르기
1교시	알파벳 송 부르기
2교시	기본 영어 배우기
3교시	배운 것 직접 써보기
4교시	놀이로 복습하기
5교시	간식 시간:)



구인

“옆에서 친구들이 뛰놀고 있는데도 내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뿌듯했어!”

그 외 이 달의 아띠클라쎌 이야기 :)

-아띠클라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좀더 나은 간식을 위해 샌드위치를 준비해 갔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아띠들의 기쁨도 2배!

-12기의 아띠클라쎌는 변변치 않은 장소 하나 없이 마을 옆 조그만 공동묘지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모님들의 걱정으로 마을 안 작은 공터에서 아띠클라쎌를 진행하고 있다.



둘. 덤프사이트 사람들의 이주계획은?

우리가 처음 이 곳에 왔을 때 YMCA로부터 정부가 덤프사이트 사람들을 12월에 이주시킬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11월이 끝나가도록 이주에 관한 움직임이 없어 YMCA와 이야기 해본 결과, 정부는 내년 1월에 이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코디네이터들에 의하면 1월이 2월이 되고 2월이 3월이 될지 모르며 정확하게 이주가 이루어질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영제

“배방잇! 12월에 이주를 약속하고 무책임하게 미루다니 정말 배방잇이야.”



덤프사이트, 남은 12월은?

간단한 Interview 영상 만들기

가족사진 촬영

아띠클라세 미술교육

마을 전체 대상 피딩프로그램

Christmas Party(and farewell party)



경구

“덤프사이트를 다녀온 후, 흙투성이가 된 내 발을 볼 때면, 오늘 하루 그들과 제대로 어울렸다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떠올라~ 😊”





지연

“이 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결국 내게 에너지가 됐던 것은 덤프사이트의 아이들이었어. 눈을 반짝이며 나를 바라보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에게 달려와 안기던 아이들. 활동지를 떠날 때면 아이들이 내 눈에서 멀어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게 돼. 지금도 아이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똥똥 떠돌아.

11월 초에 우리 동네를 걸어가고 있는데 차도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우리가 덤프사이트에서 만나는 안토니오인가! 밤 9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다구판 시내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나왔다가 우리를 만난거지. 그 이후로 나는 밤에 길에서 쓰레기 차를 보면 내가 아는 익숙한 사람들이 있진 않을까 두리번두리번 거리면서 확인하게 돼.

이제 막 초등학교에 다니며 공부해야 할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쓰레기를 줍고 심지어 몇몇 아이들은 쓰레기를 줍기 위해 학교도 가지 않아. 덤프사이트가 아닌 내가 사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야. 너무나 반가우면서도 가슴이 먹먹해.”



인간극장

동거동락, 좌충우돌 4남매

기부

아침부터 영제가 경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경구야!" 경구는 더 잘테니 다 먹으면 깨우라고 합니다. 아침을 먹으며 지연이는 말합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지?" 구인이는 생각합니다. '반딧살 먹고 싶다.' 다 먹으면 셋은 경구를 깨워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온아띠들은 오늘 대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화장실 청소는 영제입니다. 영제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 내 팔자야.' 경구는 이제 슬슬 배가 고파 물어 봅니다. "우리 뭐 먹어?" 지연이와 구인이는 뭘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지 생각을 합니다. 메뉴가 결정되었네요. 청소로 힘들었던 라온아띠는 요리의 수고를 덜기 위해 피자를 먹습니다. 피자가 약간 부족한 것 같다고 느낄 때, 구인이는 냉장고 안에 파파야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경구야!!

점심은
뭐 먹지?



내 눈을 바라봐.
넌 내게 빠지고



내일 있을 덤프사이트 아띠클라세를 준비합니다. 어떤 수업을 준비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지, 어떤 간식을 준비하면 아이들이 좋아할지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저녁 재료를 사기 위해 장을 보러 갑니다. 구인리와 지연이는 미리 찾아놓은 레시피를 바탕으로 화려한 요리솜씨를 뽐내 보입니다. 영제와 경구는 너무 맛있어서 손가락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열심히 먹습니다.



배가 부른 라온아띠들은 운동을 하기 위해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갑니다. 구인이는 어김없이 셀카를 찍고 있네요. 영제와 경구는 예쁜 여자가 없을까 주변을 둘러봅니다. 슬프게도 공원에는 커플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아띠하우스에 ymca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시끌벅적 웃고 놀다 보니 금새 오후 10시가 지났네요. 더 늦으면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어 친구들은 아쉽게 작별인사를 건네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아띠들의 하루는 저물어 갑니다.



"형! 보면 나한테 말 줘."
"하..커플 뿐이야ㅠㅠ 슬퍼"



백지연(22세), 다이어트 중
“역시 식사 후엔 후식이죠.”



반딧살(갓 태어남), 연애중 with 구인
“어서 와. 한 입 먹는 순간 넌 내 노예가 될 거야.”



강경구(23세), 밥돌이
“방금 점심 드시지 않았어요?”
“스파게티랑 치킨은 후식이죠.
누가 밥으로 먹어요?”



라온아띠(3개월 차), 선택장애자들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싶어서요. Ate(이모)
 could you please recommend best
 menu??”

강경구(23세) & 정영제(25세), 여자를 좋아함
 “우리 이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구인(21세), 정영제(25세), 요리왕
 “구인아, 먹을 수 있는 거지...?”
 “두고봐!! 난리 난다.”





정영제(25세) & 정구인(21세) & 백지연(22세)
“난 누구, 여긴 어디..? 내가 졸리면 자는 거다.”

라운아피(3개월 차), 언제나 라운아피 티셔츠
“내가 제일 잘 나가.”



중간평가 이야기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간평가! 동민 간사님과 은솔 간사님이 13기 모집 때문에 오지 못하셔서 아쉬웠지만, 유경 간사님과 우영 간사님과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며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마닐라 Y와 팡가시안 Y의 실무자분들이 중간평가 기간 내내 함께 다니며 우리를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다.



간사님들과 함께 덤프사이트와 푸가로를 방문하고 중간평가 발표를 하였다. 중간 평가 발표 이후 활동에 대한 피드백은 다음과 같다.



덤프사이트

추후 실행 예정인 마을 사람들과의 인터뷰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셨다. 한국에서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 마을의 이야기가 소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덤프사이트의 주민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그 곳에서의 삶의 이야기가 온전히 유지되기는 힘들 것이다. 덤프사이트의 이야기를 인터뷰에 잘 녹여 낼 수 있도록 고민해보라고 조언해 주셨다.

푸가로

푸가로에서 그린하우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차라리 데이케어센터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였으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의 고민에 대해 “변화를 이끄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영향을 준다면 가치 있는 활동이다.” 라고 하셨다. 처음에 라온아띠가 아니면 안되지만, 그 후에 라온아띠가 없어도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그것이 라온아띠가 해야 할 일들 중 하나라는 조언해 주셨다. 다음 기수는 아이들과 함께 텃밭 가꾸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여주셨다.



산타크루즈

우리가 홈스테이를 하게 될 산타크루즈를 방문 했다. 전 기수가 홈스테이 했던 곳을 미리 살펴보니, 이제 정말 눈앞에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홈스테이와 동시에 이뤄질 안양 청소년 캠프에 관해서 라온아띠와 청소년들이 해야할 일에 대해 간단히 들을 수 있었다.

Hundred Islands ☺

전 기사들의 보고서를 보고 Hundred Islands를 가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던 우리가 드디어 Hundred Islands에 가게 되었다. Hundred Islands는 작은 1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며, Snorkeling, Cave Diving, Fishing, Surfing등등 다양한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우리는 Snorkeling을 즐겼는데 물 속에서 생동함 넘치는 해양 생물들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작은 100개의 섬들 중 3곳 밖에 가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탁 트인 바다와 아름다운 경치들은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 Hundred Islands 이대로 끝내긴 아쉽다! 다음장으로~ 출발!



빨리 좀 익어랏



김치~~~치즈~~~



호강하네...헛



젠틀경구





아싸 호랑나비!



같은 포즈 같은 느낌



Feel 70's!!



따라와~~



나뭇가지가 나에게로와 안겼어.
이제부터 앤 나의 친구야!



아 시원타~~

왜 일까? 쉬~~?



섹 시



한마리가! 카!

홈스테이

4박 5일 간의 이야기



정영세의 YJ 특공대 - 홈스테이

아띠하우스와의 비교로 통해 보는 홈스테이

	아띠하우스	마미줄리's하우스
가족구성원수	4	2
이웃집구성	옆집 (아띠 & 베 이비)	옆집 (마미's 마미 & 언니) 아래집 (마미's 동생의 가족)
방수	2	2
베란다	X	O
변기커버	O	O
TV	X	O
휴지	O	O
세탁기	X	X
잠자리	매트릭스	침대
에어컨	X	O
인터넷	X	O
자가용	X	O
냉장고	O	O
바퀴벌레	O	X
도마뱀	O	X
모기	O	X
개미	O	X
붉은 개미	O	X
큰 개미	O	X
작은 개미	O	X

‘마미줄리의 집은 보편적 한국의 가정과 흡사하다.’가 이번 홈스테이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점이다.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마미줄리의 집에는 웬만한 가전제품은 모두 구비되어있다. TV는 한국의 우리집 것보다 큰 스마트 TV이다. 집에는 와이파이가 터지고 필리핀에서는 귀하다는 변기커버와 휴지가 버젓이 구비되어있다.

비록 옆집과 아래집에 가족과 친척이 살기는 하지만 확실히 마미줄리네는 한국의 핵가족 형태를 띄고 있다. 가족의 구성원도 마미와 딸 두명으로 한국의 평균 가족 구성원 수 (3~4명)과 비슷하다.

아띠하우스에서 겪는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는 벌레다. 다른 아띠의 홈스테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벌레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말도 있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마미줄리네에서 머무는 5일 동안 단 한 마리의 벌레도 보지 못한 것은 참 신기한 일이다.



내가 놀란 최신식 삼성스마트 TV



마미줄리의 집은 한국의 투룸의 모습을 띄고 있다. 가운데 조카 오른쪽 마미의 마미

이동경로로 보는 홈스테이

첫째날 : 집 → **집 근처 대형마트** → 집

둘째날 : 집 → 보누안 해변 → 집 → **루카오CSI (대형마트)** → 집

셋째날 : 집 → **다구판 공동묘지** → 집

넷째날 : 집 → 즐리비 → 안다들어감 → **안다공동묘지** → **장례식장(마미줄리 친척)** → **친척집1** → **친척집2** → 안다나옴 → 집

다섯째날 : 집 → YMCA

이동경로에 전통시장은 없었다. 그렇다. 마미줄리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다. 장을 볼 때는 대형마트를 이용한다. 동네에 미니컨틴(구멍가게)이 없기는 하지만 미니컨틴을 이용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한국의 평범한 도시의 가정처럼 장을 볼 때 차를 끌고 대형마트에 가서 얼마간의 먹을 거리를 한 번에 많이 사온다.

5일 중 두 번이나 공동묘지에 방문한 이유는 11월 1일이 필리핀 국가적으로 큰 기념일(All Saint's Day)이기 때문이다. 할로윈 다음 날인 이 기념일에는 필리핀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의 묘를 찾아가 초를 켜고 꽃을 놓는다. 이 때문에 이 날에는 한국의 설이나 추석처럼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다. TV에서는 하루종일 터미널의 풍경을 내보내고 공동묘지에는 각지에서 온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다.

우리가 안다에서 마미줄리의 친척집에 많이 방문한 이유는 마미줄리의 마미의 고향이 안다이기 때문이다. 마미줄리는 다구판에서 나고 자랐지만 마미의 마미 덕분에 안다에 친한 친척들이 많다. 한국도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지만 필리핀은 많은 가족들이 한국의 집성촌처럼 친척들과 한 마을에 모여산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면 모든 친척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참고 : 안다는 Mother of Hundred Islands(100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첫번째 국립공원, 중간평가 챗터에서 확인가능)라고 불리는 섬이다. 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업이 행해지고 있으며 맛있는 생선들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큰 섬이기 때문에 섬의 중심에는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왼쪽 - 평소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마미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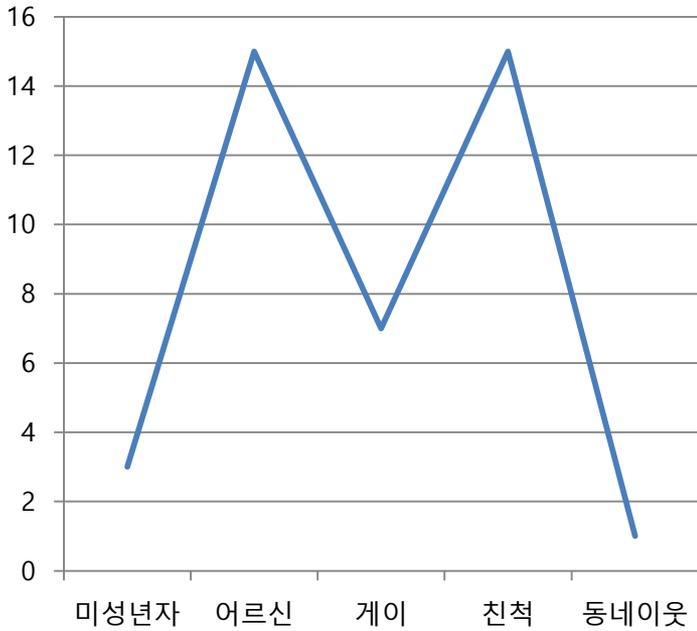
가운데 - 다구판 공동묘지에서. 왼쪽부터 누나 이모 할머니 마미줄리



오른쪽 - 친척들과 안다 공동묘지에서



만남 사람으로 보는 홈스테이



* 이 차트의 최대 명수는 15명입니다.

P.S 나의 소감

4박 5일 동안의 공식적인 일정은 안다에 가는 것 뿐이었다. 그 외에 정해진 것은 없었다. 내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고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갈 수 있는 것이었다. 확실하지는 않다. 나는 전자를 택했기 때문에 후자는 모른다.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으면 보내 주셨을지도... 주저 리주저리...

여튼 잘 쉬었다. 정말 집에 머무는 듯이 밥먹으라는 엄마의 목소리에 깨고 누나는 나에게 설거지를 당연스레 떠넘겨주었다. 나는 한국에서처럼 찍소리 못하고 물을 켜고 수세미에 세제를 문질렀다. 자연스러웠다.

그저 5일을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딱히 특별히 한 것이 없다. 마치 한국의 집에서처럼...

마미줄리의 자녀들은 모두 성인(29세, 25세)이다. 그래서인지 이 기간 동안 미성년자를 만난 적은 거의 없었고 아랫집에 사는 두명의 남자 조카(18세, 5세) 두 명 과 안다에서 만난 UL에 다니는 대학생 한 명이 전부였다. 그에 반해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다. 보누안 비치에서 다구판 공동묘지에서 안다에서 수 많은 어르신들과의 인사를 통해 얻은 것은 마녹(필리핀 전통인사법)에 의한 이마의 상처?라는...

여기가 필리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게 해준 게이들과 친척들. 필리핀은 게이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며 살아간다. 또한 필리핀은 아직 혈연활동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이루어진다.

동네이웃과는 한 명만 인사를 나눈 것(다른 이웃과 눈인사는 하지만)은 한국과 비슷하다.

→이 중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4명.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1명!

↘홈스테이 기간동안 많은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렸다.

↓이 기간 중 유일하게 만난 유아



경구의 Home stay



4박 5일 동안 아르넬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다. 처음 홈스테이를 갈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잠들었던 기억이 아련하다. 홈스테이 기간과 내 생일이 겹쳐서, 아르넬의 가족들이 생일을 축하해주었다. 또한, 이날은 아르넬 친구의 생일이었다. 친구집을 방문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이 곳 필리핀은 대가족의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친척들이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내가 홈스테이를 한 ‘가야만’이 이러한 지역들 중 하나이다.

이 마을에는 알렌, 말루, 제레미, 아르넬, 이상 4명의 YMCA의 사람들이 산다. 아르넬과 알렌은 가까운 친척관계여서 집이 붙어있는데, 아르넬과 나는 밤마다 그곳에서 잠들었다. 우리의 코디네이터인 말루 또한 이들과 친척 관계이다. 홈스테이 기간 중에 말루를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한번 밖에 만나지 못해 아쉬웠다. 홈스테이를 하면서 제레미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 때 필리핀의 다양한 언어 중 하나인 팡가시난세를 배울 수 있었다. 지금 까지도 그 때 배운 3가지 문장들은 유용하게 쓰인다. 마을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일까, 단지 아르넬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한 것이 아니라 ‘가야만’이라는 마을 자체에 살다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11월 1일은 매년 죽은 자들을 기리는 날로 대다수의 필리핀 사람들은 이때 그들의 묘지를 방문한다. 아르넬의 가족들과 함께 공동묘지를 방문했는데, 한국의 공동묘지와 다르게 비석의 형태로 땅에 박혀 있었다. 또한, 같은 종교끼리 한 지역에 묘지를 쓰는 것이 신기했다. 크리스찬이 대부분이라 소수의 종교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었는데, 소수의 종교는 우선 그들끼리 묘지를 만들고 자리가 없으면 다른 종교에게 허가를 받고 그 땅을 사용한다고 했다. 한국의 공동묘지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축제와 같은 느낌이 들어 새로웠다.



축제 시즌 처럼, 사람들이 묘지에서 불꽃놀이도 하고, 웃으며 술도 마시고, 게임도 즐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이 날, 가장 많은 시간을 온 가족이 함께 보내어 더 친밀해졌다. 원래 아르넬과 그렇게 까지 많이 얘기 해 보지는 않았는데, 홈스테이를 하면서 친해진 것 같아서 좋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농구공을 튀기며 땀에 젖던 시간, 별빛을 받으며 함께 기타 합주를 하던 시간들은 행복한 시간들 중 하나로 기억될 듯 하다.

백지연

With Emerson
In Calasiao

나의 가족들 →



10월 30일, 홈스테이 첫째날

우리 라온아띠는 이번에 총 5일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고 내가 홈스테이를 하게 될 집은 ymca의 staff인 에머의 집이었다.

에머가 사는 곳은 Calasiao로 다구판에서 20분 떨어져있다. 짐을 두고 에머가 다녔었던 고등학교에 가서 MR. & MS. United contest를 보았다. 마빈이 심사위원으로 있었는데 우리에게 ymca상의 수여를 부탁해서 내가 무대 앞에 나가 띠를 둘러줬다.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후에 치킨과 돼지고기 구이를 사서 집에 돌아와 엄마, 아빠께 인사를 드리고 함께 필리핀 스타일로 손으로 밥을 먹으며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첫째 날은 일찍 잠에 들었다.



10월 31일, 홈스테이 둘째날

비자 연장을 하기 위해 아침일찍 ymca에 갔다 온 후 우리는 로빈슨몰에 들어서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이전에 간호사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대학을 2~3년은 더 일찍 졸업해서 훨씬 일을 빨리 시작하는데 20살부터 간호사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ymca의 staff로 일을 한다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팝콘을 사고 돌아와 마당에서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두 달 동안 이곳에 온 후 항상 활동지 생각을 하면서 많이 지쳤었는데 처음으로 제대로 휴식기를 가지게 되어 너무 좋았다.

후에 어머니의 동생 동갑내기 친구 김벌리가 나를 위해 차우킹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사서 들어왔다. 남은 홈스테이 기간 동안 얼마나 더 살이쪼갤까 기대가 되었다.



11월 1일, 홈스테이 셋째날

오늘은 All saint' s day다. 필리핀에서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로 마치 우리나라의 설날이나 추석처럼 많은 친척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여 성묘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 묘지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긴 묘지들이 크게는 5층 높이로 굉장히 높게 쌓여있었다. 사람들은 묘 앞에 초를 사서 세워놓고 간단한 과일이나 쿠키, 음식들을 놓는다. 한국의 문화와 굉장히 비슷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같은 아시아문화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곳에서 ymca volunteer 마릴루와 레이디 린도 만날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사촌들과 함께 술을 먹었다. 다 함께 돌아가며 춤도 추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11월 2일, 홈스테이 넷째날

오늘은 에머의 아버지가 사셨던 La Union의 Aringay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섰다. 처음으로 팡가시난을 떠나 다른 주로 가게 되어 기대가 많이 되었다. 에머가 누누이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많은 음식을 먹을 거라고 말했었는데 정말 실패없이 먹었다. 올해가 에머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맞는 all saint' s day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다 함께 기도를 드리고 한 상에 가득 차려진 음식을 먹었다. 그 후에도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간식으로 손바닥만한 튀김만두를 먹었다. 후에 묘에 들려 잠시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홈스테이 마지막 날을 아쉬워하며 에머와 밤 늦게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먹은것 →



11월 3일, 홈스테이 마지막날

엄마 아빠가 아침일찍 일을 나가시기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 인사를 드리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전에 미리 가족들과 다함께 사진을 찍지 못한게 매우 아쉬웠다. 그리고 11시쯤 아띠하우스로 오기 위해 집을 나섰다.

4박 5일이라는 매우 긴 시간동안 홈스테이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긴 시간동안 연휴에 손님을 맞는다는 것을 귀찮게 생각할 법도 한데 너무나도 정말 가족처럼 잘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또 평소에 장난만 치던 에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친해질 수 있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다.!

Mutya's homestay diary

10월 30일 (목) 날씨: 여전히 핫 함. 기분: 한껏 들뜸, 너무 신남

한껏 들뜬 기분으로 YMCA에서 KYM을 찾아 헤맸다.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데, KYM이 사라졌다! 다들 놀라서 KYM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먼저 출발을 해서 지금 이미 버스 안이라고 했다. 순간 정말 당황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잊지? 어떻게?? 분명 같이 출발하기로 했는데??' 머리가 멍하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 당황해서 멍때리고 KYM을 기다리는데, 뒤에서 누군가 나를 놀래켰다. 뒤를 돌아보니 KYM이 있었다.....순간 '뭐지?' 했다. 알고 보니 장난을 친 것이었다. 하하하 가끔 Y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 편이 되어서 이런 장난을 치다니. 허탈하기도 웃기기도 한 홈스테이의 첫 시작이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KYM네 집은 한적한 시골이었다. 드넓은 들과 그 사이에 양전히 앉아있는 소들, 마음이 참 편안했다. 아, 오늘은 KYM네 어머님 생일이였다. 우리 엄마 생일 히히. 덕분에 집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아이 신나>< 그렇게 맛있는 저녁과 함께 하루는 저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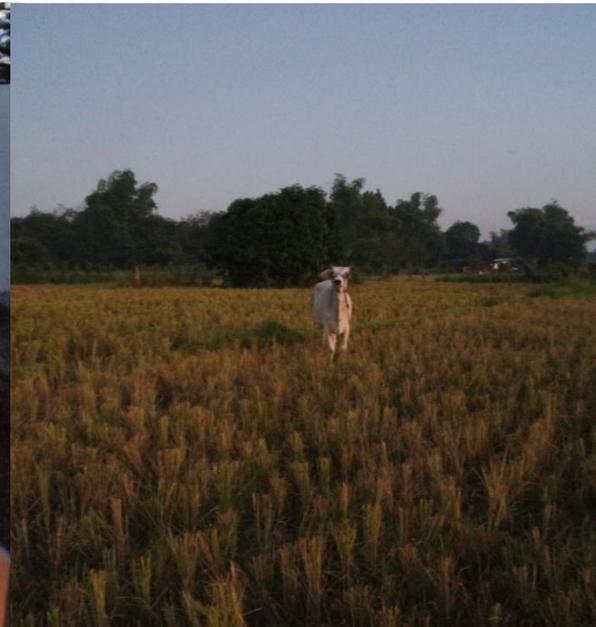
10월 31일 (금) 날씨; 오토바이 덕분에 시원했다. 기분 : 아침엔 살짝 짜증(비자 연장 때문) 점심엔 완전 행복

오전 6시부터 눈이 떠졌다. 새로운 장소여서일까, 설레는 하루는 빨리 시작하고 싶어서였을까? 기지개를 피며 뭔가 모를 떨리는 마음으로 방문을 열고 나갔다. 사실 어제 밤에 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라 늦게 자서 더 자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게으르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 이미지 관리랄까? 분명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게으르다고 들었는데, 이곳은 아니었다. 6시부터 다들 깨서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아빠와 언니는 출근 준비를 엄마는 요리를, 새삼 여기가 집이구나 싶었다. 필리핀의 가정, 그 속에 내가 있구나. 내가 어제 반딧살을 좋아한다고 한 말을 기억하셨는지, 가득 놓인 반딧살을 배시시 웃으며 집어 뚫으로써 나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전엔 필리핀에 와서 처음 보는 평면 TV에 한 번 놀라고, 한국 채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한 번 더 놀라며 TV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앓듯 눕듯 쇼파에 내 몸을 기대채, 옥수수 (이 또한 필리핀에서 처음 먹었기에) 맛을 감동스럽게 음미하며 TV를 보는데,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선 특별히 일 없으면 하는 게 TV보는 거였는데, 필리핀에서는 이것마저 나한테 행복한 삶이 되는구나.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ㅠ.ㅠ 오후엔 푹푹이 여동생 KATE랑 코코넛 마카롱을 만들었다. 나도 여자였구나..ㅎ 베이킹에 소질이 있나 보다. 맛도 장난 없었다. 그리고 동생들과 자전거를 타러 갔다. 노을이 얼마나 예뻐던지.. 노을 빛 아래에서 동생들과 함께 타는 자전거는 내가 좋아하는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보다 100배로 날 행복하게 했다.



11월 1일 (토) 날씨; 밤엔 살짝 추웠다. 기분 : 아빠 사랑해요.

5일이 참 길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오늘이 3일째 아침이야? 뭐이리 시간이 빠른거야. 점점 홈스테이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나 난 오토바이 홀릭! KYM 뒤에서 오토바이를 탈 때면 정말 행복하다. 시원한 바람이 내 머리를 가르며 내 얼굴을 살짝 쿵 칠 때, 빠르게 지나가는 한적한 필리핀의 풍경을 볼 때, 특히나 저녁엔 하늘의 수많은 별을 헤아리며 밝은 달과 마주할 때, 나도 모르게 배시시 웃게 된다. 정말 행복해서, 한국에 가면 느끼지 못할 이 모든 것을 잊지 않으려고 내 가슴에 꾹꾹 눌러 담는다. 그리고 오늘은 필리핀 휴일이다. 죽은 사람들을 추모 드리는 날로 가족들이 조상들의 묘지에 가서 인사를 드린다. 마치 우리나라 설날과 추석처럼. 그런데 휴일에도 아빠는 회사에 출근을 했다. 이른 아침부터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가는 아빠를 보며 가장의 무게를 새삼 실감했다. 아빠로 산다는 건 참 힘든 것 같다. 우리 아빠 보고 싶다. (아빠 지금 보고서 보고 있어요? ㅎㅎ 아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 돌아가면 제가 더 잘할게요. 아빠 사랑해요 ♡) 내일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Sanpabian beach로 피크닉을 가기로 했다. 대박 기대 돼!!! 내일 가져갈 푸룬(바나나 튀김)을 kate와 함께 만들고 굿나잇~Bye



11월 2일 (일) 날씨: 새벽은 서늘했지만 역시나 더위는 여전함. 기분: 스펙타클

너무 신나!! 바다라니, 필리핀에서 처음 가보는 바다다!! 새벽부터 일어나 가족들은 트라이시클을, 나는 Kym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바다를 향해 출발했다. 새벽에 타는 오토바이는 또 이런 맛이구나. 햇살아 오늘은 조금만 늦잠을 자주지 않으려나? 그렇게 도착한 바다는 우리나라랑 다를 게 없었다. 순간 한국에 온 것인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역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구나!

바다에 뛰어들어갔다. 물이 내 몸에 잠겨 올수록 기분이 짜릿했다. 참 오랜만에 오는 바다다. 내 몸을 파도에 맡기고 난 잠시 쉬기로 했다. 파도가 나를 들었다 놔다 했다. 히히 너무 즐거웠다. 가족들과 함께 공놀이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뒷마당에 평상을 피고 점심을 함께 먹었다. 필리핀의 도시에선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하나하나가 새롭고 즐겁게 다가왔다. 점심을 먹던 도중, 나의 레이더망에 코코넛이 걸려들었다. 먹고 싶다! 나의 한마디에 남동생 카엘은 자기 친구를 불러왔다. 엄청난 높이를 자랑하는 코코넛 나무에 올라가서 직접 따다 주겠다는 것! 오마. 그저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성큼성큼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타잔인 줄 알았다!! 갓 따서 빨대를 꽂아 먹는 코코넛은 정~말 신선했다. 사실 맛은...ㅋㅋㅋ 맛이 어찌냐고 웃으며 물어보는 가족들을 실망시키려고 싶지 않은 마음에 다 마셔버렸다. 정말 배 불러서 죽는 줄...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는 게 싫다. 싫다. 싫다.ㅠ_ㅠ 잠에 들기 참 아쉬운 밤이었다. 아쉬움에 허덕이고 있는 나에게 Kym이 말을 걸어왔다. 초반엔 가볍게 시작한 대화였는데, 점점 우리의 대화는 진지하게 흘러갔다. 확실히 사람은 진지한 대화 후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best friend가 되었다는 ㅎㅎ

Kym이 코디네이터들보다 더 좋은 건 비밀!



11월 3일 (월) 날씨 : Mainit! (hot) 기분 : 돌아가기 싫다. 떠나기 싫다.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가족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마음의 안정을 취했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고 진심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너무 잘 즐긴, 게다가 마음을 나눌 친구와 지금도 나를 그리워하는 가족들을 얻은 나의 홈스테이. 제 일기 잘 읽어 보셨나요? 후후 소녀의 일기는 원래 절대 비밀인데~@@ 당신한테만 보여주는 거니까 비밀 꼭 지켜주세요! (짹) 찢든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정영제

Enzo

If I Die Tomorrow



원래 가사를 못 알아 먹겠어서 랩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빈지노는 좋아한다. 그 중에 If I die tomorrow라는 노래를 특히 좋아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빈지노는 '만약 내일 내가 죽는다면'을 전제로 자신의 삶을 노래한다. 빈지노가 아무리 천천히 랩을 한다해도 랩은 랩인지라 가사는 잘 안 들린다. 그냥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 동안은 나도 '내가 내일 죽는다면 어떤 사람과 장면을 회상할까?'하는 생각을 한다. 4분이라는 시간은 내 삶을 모두 회상하기에 조금 짧게 느껴진다. 그래서 지금 조금은 가볍게 (너무 진지하면 슬퍼져서 눈물이 나올걸 같으니까)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고 싶다.



이건 어디까지나 생각이다.
나는 죽을 생각이 없다.
127살까지 살거니까!!

당장 내일 죽는다면 가족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셨지만 끝내 아들이 벌어진 돈 한푼 구경 못하신 우리 가여운 부모님. 넉넉치 못한 가정(지금은 괜찮음 걱정은 No)에 항상 동생에게 양보했던 강하지만 여린 우리누나. 우선 우리엄마는 오열을 하시겠지. 대학 때문에 군대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때문에 그리고 라온아띠 때문에 집을 나서게 되었을 때 언제나 눈물을 한 가득 머금은 눈으로 배웅을 해주던 우리엄마. 엄마 다음에는 사랑해 많이 말해주는 아들로 태어날게. 아빠는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시겠지? 한 때는 많이 미워한 적도 있지만 커가면서 이제 막 사회에 나가려니 겁쟁이가 된 나를 보며 조금씩 이해가 되는 우리아빠. 아빠 돈 버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누나. 누나 다음에는 내가 오빠로 태어나서 지금 누나 보다 더 잘해줄게.



아무래도 가족에 대해 쓰는 건 슬프구나. 그리고... 나의 친구들과 원장쌤. 25년동안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 왔지만 그래도 너희가 최고다. 우리 변동 친구들. 어딜 가든 너희들 보다 웃기고, 형편없고, 편안하고, 소심하고, 평범하지만 특별한 복합적인 애들은 찾기 힘든 것 같다. 헛점투성이들이지만 그래서 더 따뜻하고 그래서 내 친구가 된 건가? 끼리끼리 뭉친다고 하더니... 우리 나중엔 한 마을에 같이 살자고 한 막연한 계획은 나는 너희들 마을의 하늘에서 지켜야 할 것 같네. 그리고 나의 등불 원장쌤. 원장쌤, 원장쌤은 변동친구들에 포함시킵니다. 어린애들과 함께라니 영광이죠? 저도 선생님의 제자여서 영광이었습니다. 나의 전 여자친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마지막으로 우리 라온아띠 멤버들. 내일 아침 나를 보면 너희들은 충격을 받겠지.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잘했어야 했는데, 그치? 지연이는 요즘 힘들어 보여. 조금 내려놓고 쉬엄쉬엄 가도록. 경구는 그 사교성과 긍정의 힘으로 주위사람들과 함께 잘 걸을 수 있도록 하고. 막내는 운동 열심히해 어리게 맨날 아파. 그리고 타국에 있는 라온아띠 멤버들. 너무 울지말고 그 곳에서의 생활 잘 마무리하고 한국에 돌아오면 소주나 부어줘. 우희야 너무 많이 따르지는 마라. 민희야 소맥으로 말아주면 더 좋고. 동효는 튀김소보로 사줬어야 했는데... 여인아 취직걱정 너무 하지 말고. 나보다 나이 많으신 두 분 건강 챙기시고요.



모두모두 다 보고 싶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떠나려고 하다니 아쉽네요. 그렇게 하루라도 더 시간이 있었을 때 더 잘해주고 비난보다는 칭찬으로 망설임보다는 용기로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살아 갈 걸 그랬어요.

는 주저리주저리 나의 그냥 지금 생각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 짧은 가상의 시간에도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드는데(조금 장난 식으로 적기는 했지만), 실제면 어떨까? 그런 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코디 중 한 명은 그랬지.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어,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은 신경 안 쓰고 살아. 그냥 열심히 살아.” 맞다. 죽음보다는 하루라도 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시간이 있을 때 더 잘해야겠다.



정진석 천정은 정미리 오우균 김동주 김영곤 김영진 남궁훈 이상진 설재형 이양열 서유리 최형욱 한상근 조국래 현규성 현재경 주우영 박재용 김택준 박후인 임무성

강경구

Pedro

<깨져 버린 마음의 조각에서 나를 찾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 전신을 어루만지며, 나의 하루를 깨운다.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방치한 채, 반쯤 감긴 눈을 비비며 세면대로 발걸음을 옮긴다. 차가운 물방울들이 안면을 때릴 때, 잠에 취한 육신도 함께 씻겨져 내려간다. 그렇게 ‘나’의 하루는 시작된다.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일년이 된다. 무수히 많은 시간의 ‘점’들이 모여 인생이란 ‘선’을 이룬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시간을 제대로 잡기엔 아직 많이 미성숙한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많이 부족한 내가 조금이나마 성숙해지기 위해 내면의 거울을 자주 들여다 보게 되었다. 어긋난 관계의 틀이 제자리를 찾아 가는 것이 힘들었던 것일까? 단 하루를 제외하곤 휴식시간이 없었던 만큼, 숨 가쁘게 달려온 일정 탓이었을까? 혼자 나를 돌아 보고 싶다는 기분이 자주 들었다. 종종 밤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길 때면 수 많은 질문들이 나를 집어 삼킨다.





조심스럽게 들여다 본 내 모습은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나’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긍정적으로 살자’는 좌우명대로 웃으며 즐겁게 살아가던 모습은 간데 없고 ‘힘들다, 쉬고 싶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다. 그래서일까 평소대로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던 것에 팬스레 기분이 나빠지기도 했다. 육신의 피로가 마음까지 피로하게 물들여 놓은 것 같다. 또한, 이제까지 나는 나의 생각을 유연하게 굽힐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던 “넌 고집이 참 세다”는 말이 이제서야 와 닿았다. 머리만 이해했던 부분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데 수 많은 시간이 소모 되었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사고의 변화는 필요와 경험을 통해서 힘겹게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겉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나에게 필요한 것 같다.



생각해보면 그 전의 나의 모습은 지나치게 낙관주의였던 것 같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독’이 된다. 긍정적인 생각은 좋지만 그 긍정적인 생각이 과하면 무비판적인 수용이 된다. 이전의 나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는 주의였던 것 같다. ‘아무거나’라는 말은 어디에 놓아도 자연스럽게 녹아 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현실에 안주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나의 경우는 후자에 가까웠던 것 같다. 약간의 비판적인 사고는 현실의 향락에 빠진 나 같은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지금 나의 모습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듯하다.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의 중도점을 찾는 것이 나의 인생에 놓여진 중요한 과제이다. 이 중도점을 찾아가며 한층 발전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새로운 삶의 목표이다.





누군가에게 있어 '욕심'은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나에게는 몹시 고마운 요소이다. 어떤 면에서 내가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어쩌면 욕심 때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대충 쉽고 빠른 길만 찾아 가던 내가, 조금 더 느리고 깊이 있게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덤프사이트, 푸가로 활동에 처음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하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풍부하게 전달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시간이 지난 달에 비해 많이 필요했던 것 같다. 활동에 책임감이 든다. 아무 생각 없이 적응하기 바빴던 첫 달, 이제 좀 적응이 된다는 둘째 달.. 이번 달은 나에게 책임감의 달로 다가온다. 아이들의 알파벳 외침소리가 내 고막을 울릴 때, 아무것도 없던 공터에 들어선 그린하우스의 모습을 볼 때, 가슴 속에 뜨거운 전율이 흐른다. 한 없이 무디게 흘러가는 대로 살던 내가 더 잘해보기 위해 욕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욕심이 있기에 비판적으로 변해 버린 내 모습에 당황한 때도 있었지만, 자기 발전의 초석을 마련 했다는 생각에 기쁘다. 작은 변화의 불씨가 내 삶을 더 뜨겁게 태워주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인다.

백지연

Charito



11월의 마지막날, 현지 친구가 ‘Tomorrow is December’라고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다. 필리핀의 더운 날씨 때문에 나의 시간은 한국의 여름에서 멈춘 것 같았다. 한국에서는 계절의 변화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는데 여름이 계속되니 마치 긴 여름을 보내고 있는 듯 하다. 어느새 2015년을 한달 앞둔 지금, 그리고 라온아띠로써의 삶이 절반이 지났다.

이곳에서의 삶은 가끔 나를 괴롭게 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내 모습을 마주할 때 난 오히려 ‘이게 나인데 어찌라고’ 그런 생각을 했다. 그렇게 나를 방어했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런 나와 생활하는 팀원들에게 가끔 미안했다. 싫은 소리 잘 안 하는 영제오빠, 언니하며 잘 따라주는 구인이, 의견이 안 맞아도 결국은 내 말을 잘 들어주던 경구. 그러다 보니 팀원들과 핀트가 어긋나면 난 열심히 비꼬고 속으론 물고 뜯다가도(너덜너덜하게) 나를 생각해주는 팀원들을 보면 괜히 더 미안해져 잘해주곤 했다.

한 현지친구가 나를 착하다고 칭찬한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착하다’는 칭찬할 게 없을 때 하는 말 아니었나? 그래서 난 착하단 말을 싫어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래서라기 보단 이 사람이 칭찬하는 나의 모습은 꾸며진 모습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다. 가끔은 나도 혼란스럽다. 이게 정말 나인지, 혹은 이 꾸며내는 모습조차 나인지.



이번달의 나를 돌아보면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그저 웃고 있지도 않았다. 얼마 전에 밥을 먹으면서 ‘행복해!’라고 말하는 나에게(정말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언니! 언니가 행복하다고 말 하는 거 정말 오랜만이야”라고 구인이가 말했다. “지연아, 여기 와서 너 보면서 너가 괜찮은지 조금 걱정됐어”라며 우영간사님이 말하셨다. 평소에는 힘들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다가도 그런 말을 들으면 ‘아, 내가 그랬나? 내가 그랬구나..’하며 깨닫곤 했다.

얼마 전 출국 전 캠프 때 중간평가의 나에게 쓴 편지를 읽어보았다. 생각지 못하게 편지를 읽고 나서 힘이 났다. 편지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났다. 3개월 전의 나는 나에게 ‘바닥까지 가보자. 힘들 때까지 힘들어보자’라고 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 23년간의 내 삶을 돌아본다면, 나에게 힘들었던 순간을 묻는다면 언제를 꼽을 수 있을까? 사실 지금도 그렇게 힘들지 않다. 내 속을 둘러싼 단단한 벽을 더 깨고 부수면 진짜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힘이 난다.

이번 11월은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었다. 11월은 어느 때보다 열심히 활동하면서 몸이 지치고 그러다 보니 활동을 일처럼 여기게 되진 않았는지. 나는 아시아의 좋은 친구들이지 아시아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남은 시간은 정말 활동을 즐기고 싶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웃음이 실실 새어 나오고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이 곳에 다 담을 순 없지만
모두 모두 사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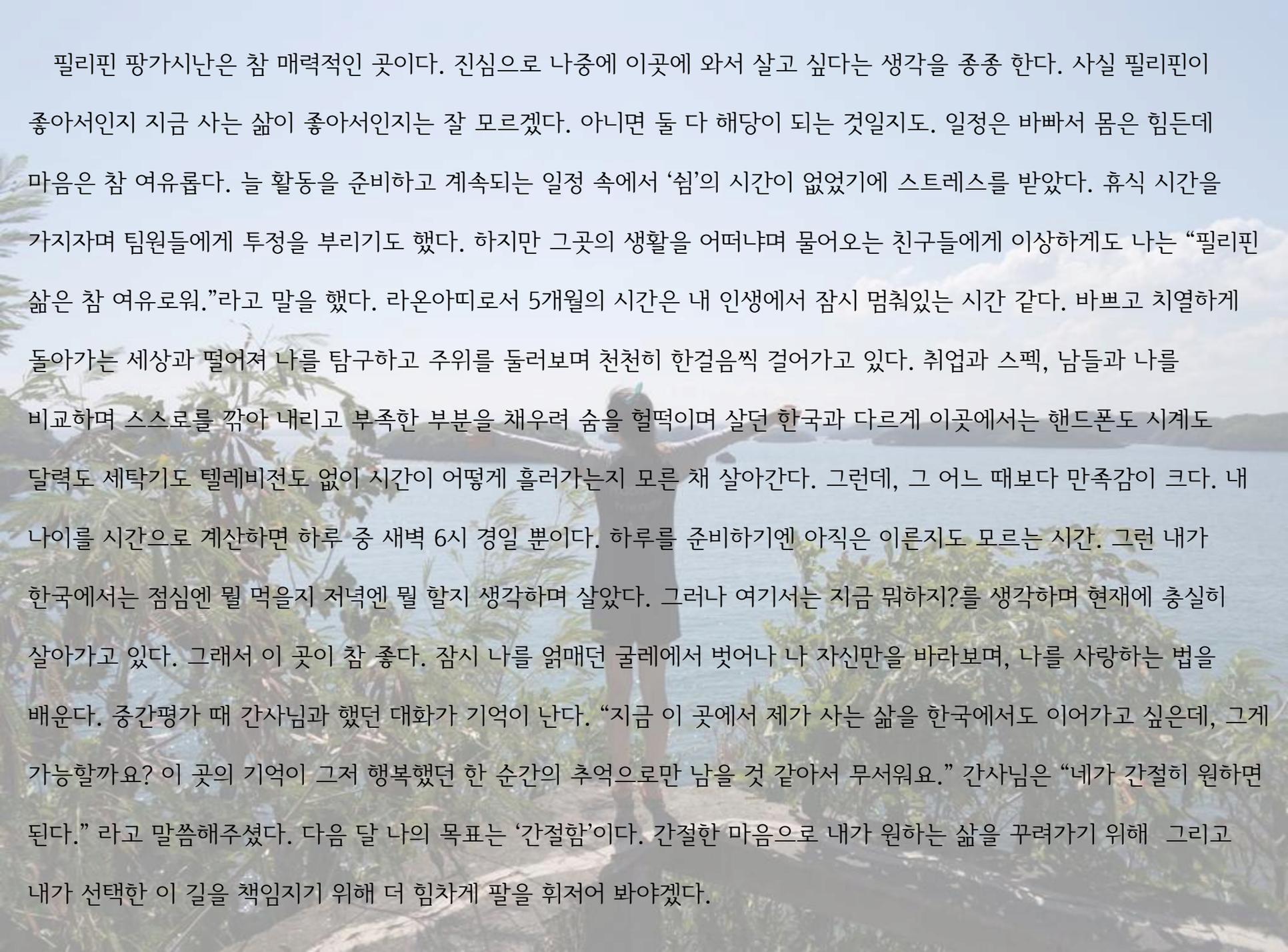


정구인

Mutya



‘인생에 쉬운 게 어딴겠냐. 우리는 제일 어려운 길을 택했는데’ 눈을 뜨고 1층으로 내려오면 보이는 글귀이다. 이 문장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 각자에게 힘들었던 일이 있었던 다음날, 만오빠인 영제오빠가 벽에 붙여놨다. 속상함에 잠을 설치고 내려와서 저 문장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다. 글귀를 읽으며 받는 위안보다 누군가 나의 마음을 헤아려 저런 글을 준비했다는 게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었다. 이번 달은, 팀원들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나를 돌아봤던 한 달이었다. 국내훈련 때만 해도 ‘우리 팀원들과 무사히 5개월을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이 많이 들어서 가끔 혼자 있으면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거실에 앉아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 모여 앉아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빵 터졌다. 서로 많이 친해졌다는 게 새삼 느껴진다. 편해진다는 건 솔직해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 그 상처를 서로 치료해줄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 같다. 초반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면 나를 이상하거나 안 좋게 생각할까 봐 말을 아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 시절을 지나 이제는 없으면 허전한 연인도 친구도 아닌 참 애매한 나의 새로운 가족들. 한국에 돌아가도 함께 고민을 나누며 살 수 있는 동지들을 만났기에 난 든든하다.

A person is standing on a rocky outcrop overlooking a tropical beach and ocean. The person has their arms raised in a gesture of freedom or joy. The background shows a clear blue sky, white clouds, and a calm sea. The foreground is filled with lush green tropical vegetation, including palm trees and other plants. The overall scene is bright and sunny, suggesting a warm, pleasant environment.

필리핀 팡가시난은 참 매력적인 곳이다. 진심으로 나중에 이곳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사실 필리핀이 좋아서인지 지금 사는 삶이 좋아서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니면 둘 다 해당이 되는 것일지도. 일정은 바빠서 몸은 힘든데 마음은 참 여유롭다. 늘 활동을 준비하고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쉼’의 시간이 없었기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휴식 시간을 가지자며 팀원들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곳의 생활을 어떠냐며 물어오는 친구들에게 이상하게도 나는 “필리핀 삶은 참 여유로워.”라고 말을 했다. 라온아띠로서 5개월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잠시 멈춰있는 시간 같다. 바쁘고 치열하게 돌아가는 세상과 떨어져 나를 탐구하고 주위를 둘러보며 천천히 한걸음씩 걸어가고 있다. 취업과 스펙,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 내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숨을 헐떡이며 살던 한국과 다르게 이곳에서는 핸드폰도 시계도 달력도 세탁기도 텔레비전도 없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른 채 살아간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만족감이 크다. 내 나이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하루 중 새벽 6시 경일 뿐이다. 하루를 준비하기엔 아직은 이른지도 모르는 시간. 그런 내가 한국에서는 점심엔 뭘 먹을지 저녁엔 뭘 할지 생각하며 살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뭐하지?를 생각하며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곳이 참 좋다. 잠시 나를 얽매던 굴레에서 벗어나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중간평가 때 간사님과 했던 대화가 기억이 난다. “지금 이 곳에서 제가 사는 삶을 한국에서도 이어가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 곳의 기억이 그저 행복했던 한 순간의 추억으로만 남을 것 같아서 무서워요.” 간사님은 “네가 간절히 원하면 된다.” 라고 말씀해주셨다. 다음 달 나의 목표는 ‘간절함’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꾸러가기 위해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길을 책임지기 위해 더 힘차게 팔을 휘저어 봐야겠다.

변외 문득 가스레인지 앞에서 요리를 하며 ‘지금이 몇 월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어? 내가 이번 년도에 뭘 했지? 아니 그래서 지금이 몇 월인 거야?’ 라고 내 자신에게 질문을 했다. 나도 모르게 지금이 2014년의 중순, 8월 쯤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지금 필리핀은 여름이니까! 한국에서는 여름이면 아직 가을과 겨울이 남아있기에 당연히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벌써 12월이었다. 지연언니와 나는 이제 곧 2015년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이 번 년도에 우리는 라온아띠로 살고 있기에 마치 12월 달이 한 해의 마지막이 아니라 라온아띠 5개월의 마지막 지점이 한 해가 마무리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삼 깜짝 놀라며 이제 2014년이 고작 한 달 남았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이 번 년도는 참 바쁘게 달려온 것 같다.

아마 다른 라온아띠 12기들도 우리와 같은 착각은 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이 글을 써본다. 다들 한 해 마무리 잘하길☺ 그리고 모두(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미리 Merry Christmas 🎄🎅🎁

사랑하는 우리 가족
보고싶다!





SPECTACLE
NOVEMBER
LIFE

-THE END-

다음달 이 시간에 만나요.